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김현순(단국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군집유형을 살펴보고,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된 대학생 3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5개의 군집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군집 1은 다른 군집에 비해 진로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높아 '진로탄력성 강세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2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높으면서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낮아, 진로스트레스 점수가 진로탄력성 점수보다 더 높으므로 '진로스트레스 우위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3은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고,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낮아 '진로스트레스 강세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4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으면서 동시에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도 높아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둘 다 높은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5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낮으면서,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높아, 진로스트레스 점수보다는 진로탄력성 점수가 더 높으므로 '진로탄력성 우위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군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군집1인 '진로탄력성 강세 집단'의 평균이 나머지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교육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하였다.

★ 주제어: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군집분석, 대학생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제1저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강의전담조교수(khsbcr@dankook.ac.kr)

I. 서론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2017)의 대학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60%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가장 고민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학업’(25.2%), ‘경제적 어려움’(9.5%) 순이었다. 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최악의 고용 한파로 이어져 청년 실업률은 8.9%에 이르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무려 23%를 넘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반영된 결과이다(KBS NEWS, 2019).

대학 시절은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진로 실행 직전의 시기로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여 원하는 진로를 획득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김봉환, 1997; 김선중, 2005;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그 시기와 양이 중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의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김정화 외, 2007), 진로준비행동을 충분히 할수록 첫 직장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이승구, 이제경, 2008). 반면 진로준비행동의 시작 시기가 늦어지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컸으며 취업 후에도 직무수행 시 어려움을 겪거나(민혜리, 2003), 직업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사회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enkae & Pulkkinen, 1995).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준비는 빠르고 충분할수록 좋으나 진로준비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진로를 준비하고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진로준비는 대학생의 주된 스트레스 원이 되고 있다(장형석, 2000).

진로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지고 대학 생활 전반에 부적응을 초래하여 진로 결정 및 준비 행동의 적극적인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이상희, 서유란, 2012; 황지영, 박재황, 2015). 다수의 선행연구(이상희, 서유란, 2012; 표은경, 2009; 황지영, 박재황, 2015)에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들(고경필, 심미영, 2014; 김명옥, 박영숙, 2012)도 있다. 일시적이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Gibbons, 2012)처럼, 취업스트레스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연구 결과들로 인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더 상세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들 간을 매개하는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로 이어졌다.

다수의 선행연구(김희동, 남수미, 2016; 염태영, 2017; 최유진, 손은정, 2016)에서 진

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와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핵심요소로서(London & Mone, 1987),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적응하는 역량이다(London, 1993).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 목표 방해, 불확실성, 동료와의 관계 악화 등 일이나 진로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진로탄력성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인지 전략을 촉진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통찰을 끌어내기 때문이다(유현실, 2013).

하지만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신혜진(2016)은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고려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구를 통해 어떤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진로탄력성이 유연성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진로문제로부터 정서적으로 여유와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면서 바로 준비 행동을 실천하기보다는 이행을 미루게 하기도 하므로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은 이들의 영향과 그 상호작용의 효과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관계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양상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만을 고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진로스트레스 수준과 진로탄력성 수준을 가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원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에 따라 어떠한 군집유형으로 분류되는가? 둘째, 각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대학생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각 집단에 적합한 진로준비행동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

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김봉환, 1997; 김선중, 2005;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은 진로를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성숙했다고 해도 실제 준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명옥, 박영숙, 2012).

진로준비행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봉환, 1997). 첫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현황, 전망, 취업방법, 필요조건, 승진경로, 작업 환경 등)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신이 목표한 진로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및 교재를 구입하거나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는 활동이다. 셋째는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확보된 도구를 활용하고 시간을 투입하여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와 도구를 갖춰 놓아도 그것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로준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2. 진로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가리키는데,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함을 느끼고 개인의 안녕을 위협받게 되는 상태를 진로스트레스라고 한다(최보영 외, 2011; 황지영, 박재황, 2015).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심리적 ·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우울을 느끼게 하거나 심한 경우는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강석화, 나동석, 2013). 김인경, 박운창 그리고 이훈구(2000)의 연구에 의하면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들은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적대감 그리고 불안 경향성 모두에서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진로스트레스는 불투명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심화될 수 있는데 (강희순, 2010; 고경필, 심미영, 2014; 장형석, 2000) 지속되는 경제침체,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직업세계로의 진입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근래의 사회 · 경제적 여건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의 실천을 어렵게 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가중시키고 있다(김민정, 양현정,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으며(박선희, 2009), 높은 진로스트레스는 낮은 진로발달과(이현림 외, 2008), 낮은 진로성숙 수준을 예측하였다(고경필, 심미영, 2014).

3.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은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탄력성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이다(Noe, Noe, & Bachhuber, 1990). 심리학에서 탄력성(resilience)은 빈곤이나 가정불화, 혹은 정신 병력을 가진 부모 등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개인의 발달과 적응을 위협받는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성장하는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되고 정의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역경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역경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는 반응 경향성이며(Bimrose & Hearne, 2012),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핵심요소로서(London & Mone, 1987),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진로목표 성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감과 예민함을 나타내는 성격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와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진로 관련 학교환경 스트레스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윤정, 서지운, 2013). 따라서 진로탄력성은 단순한 적응 그 이상의 의미로서 진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London, 1993)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로탄력성은 자기효능감(King, 1999)과 개인의 취업 의지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김진희, 2015), 진로성숙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이지혜, 2013).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김희동, 남수미, 2016; 염태영, 2017; 최유진, 손은정, 2016)에서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와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진로탄력성의 효과는 특히 대학생에게 중요한데,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업이긴 하지만 대학생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Zunker, 2006).

4.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를 준비하는 과업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김민정, 양현정, 2015; 이현림 외, 2008).

하지만 스트레스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Lazarus & Folkman, 1984; Yap, & Tong, 2009), 진로준비라는 과업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김민정, 양현정, 2015).

선행연구들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은경(2009)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했으며, 이현림 외(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발달 수준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이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을 스트레스로 지각한다는 것은 자원의 부족함을 느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실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진로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에 빠지기 쉽고 대학 생활 전반에 부적응을 초래하므로 진로 결정 및 준비 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이상희, 서유란, 2012; 황지영, 박재황, 2015).

반면에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동기화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므로, 일시적이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Gibbons, 2012)처럼 진로에서도 진로 결정과 관련한 디스트레스를 느낄수록 진로 탐색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Larson & Majors, 199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옥과 박영숙(2012)의 연구와 고경필과 심미영(2014)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아도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현림 외(2008)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관계를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은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이 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매개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로 이어졌다.

선행연구들은 진로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심리 내적인 힘을 진로탄력성에서 찾고자 하였다(강현희: 2015; 김봉환, 2010;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역경을 인내하고 적응해 나가는 역량이므로(Noe et al., 1990),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 내어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주연, 송병국, 2014). 강현희(2015)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진로탄력성은 직업정보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탄력성이 높으면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혜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고려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대학생을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신혜진(2016)은 진로탄력성이 부족한 대학생일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매우 높고 진로준비행동에는 소극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반면,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인 집단 못지않게 스트레스와 준비행동 모두 저조한 집단에 속할 확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진로탄력성이 진로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성 있는 적응력을 가리킨다(Noe et al., 1990)고 할 때,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행동 미분화 집단’에 속한 확률이 높았던 데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진로문제로부터 정서적으로 여유와 거리를 둬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면서 바로 준비행동을 실천하기보다는 이행을 미루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로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진로스트레스 수준과 진로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그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과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59명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스트레스 척도 그리고 진로탄력성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대상은 수집된 370명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359부의 설문지이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159명(44%), 여자 200명(56%)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3명(9.2%), 2학년 138명(38.4%), 3학년 103명(28.7%), 4학년 85명(23.7%)이다.

2. 연구 도구

가.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태용(2008)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태용(2008)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김봉환의 도구(1997)에 임은미와 이명숙(2003)이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정보 탐색과 대학 내 진로상담기관 활용에 대한 2문항을 추가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탐색 행동과 준비 행동의 2개 하위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고태용(2008)의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87, 하위요인별로는 탐색 행동 .81, 준비 행동 .81로 나타났다.

나. 진로스트레스 척도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박희락(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C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 불확실성, 고용압력, 정보 부족, 외적갈등과 내적 갈등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박희락(2009)의 연구에서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93, 하위요인별로는 진로 불확실성 .91, 고용압력 .85, 정보 부족 .89, 외적갈등 .82, 내적 갈등 .73로 나타났다.

다. 진로탄력성 척도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2014)이 개발한 진로탄력성 척도(Career 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 활용의 5개 하위요인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김미경(2014)의 연구에서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93, 하위척도별로는 자기신뢰 .91, 성취열망 .84, 진로자립 .88, 변화대처 .73, 관계활용 .83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각 측정 도구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 간의 상관 그리고 각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 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묶이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방법으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의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을 연달아 실시하는 것으로, 첫 단계에서는 Ward의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군집 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s)으로 설정하는 순차적 군집 분석법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한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 간에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고, 집단 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들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 변인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의 상관은 <표 1>과 같다. 각 변인의 상관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r=-.307$, $p<.01$)을 그리고 진로탄력성과는 정적 상관($r=.499$, $p<.01$)을 보였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탄력성과 부적 상관($r=-.505$, $p<.01$)을 보였다.

<표 1>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	-.307**		
진로탄력성	.499**	-.505**	
M	3.03	2.73	3.72
SD	.695	.715	.529

** $p<.01$

2. 군집분석 결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에 따라 어떤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하위요인의 점수들을 Z 점수로 변환한 후 군집 변인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 방법을 사용하여 다섯 개의 군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을 다섯 군집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로 군집1은 62명(18%), 군집2는 68명(19%), 군집3은 72명(21%), 군집4는 58명(17%), 군집5에는 89명(25%)이 해당하였다.

각 군집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산출한 각 군집 별 변인들의 점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군집 변인들의 평균

변인	군집1 (N=62, 18%)	군집2 (N=68, 19%)	군집3 (N=72, 21%)	군집4 (N=58, 17%)	군집5 (N=89, 25%)
진로스트레스	1.73	2.82	3.44	3.36	2.73
진로탄력성	4.35	3.51	3.01	4.02	3.81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스트레스의 총점이 가장 높은 군집은 군집3이었으며 다음이 군집4, 군집2, 군집5, 군집1 순이었다. 진로탄력성의 총점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군집1이고 다음이 군집4, 군집5, 군집2, 군집3 순이었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표 3>에 각 군집 별 최종군집 중심점의 Z 점수를 기술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군집 간에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표 3>에서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군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3.103 \sim 137.37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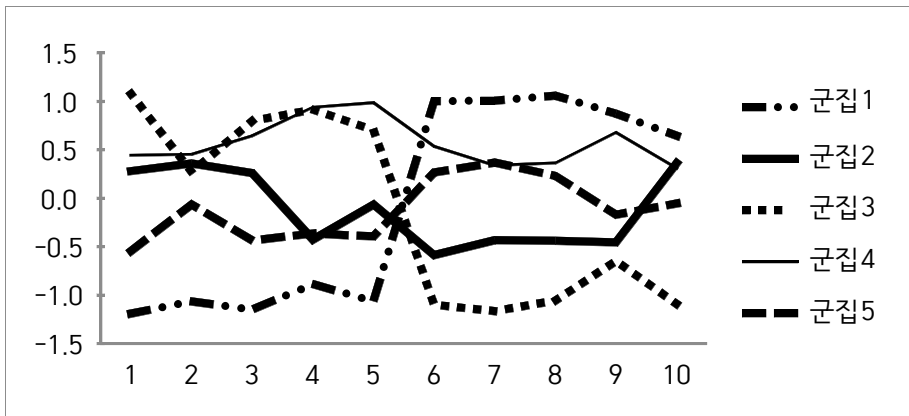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들을 근거로 군집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1은 다른 군집에 비해 진로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가 가장 낮지만($Z=-1.190 \sim -.887$),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높아($Z=.646 \sim 1.059$) ‘진로탄력성 강세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2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높으면서($Z=-.063 \sim .359$),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낮아($Z=-.5874 \sim .364$), 진로스트레스 점수가 진로탄력성 점수보다 더 높으므로 ‘진로스트레스 우위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3은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고($Z=.701 \sim 1.076$),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낮아($Z=-1.165 \sim -.647$) ‘진로스트레스 강세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4

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으면서($Z=.443\sim.986$), 동시에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도 높아($Z=.310\sim.680$)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둘 다 높은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5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낮으면서($Z=-.543\sim-.063$)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높아($Z=-.054\sim.368$) 진로스트레스 점수보다는 진로탄력성 점수가 더 높으므로 ‘진로탄력성 우위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표 3> 하위변인별 최종 군집 중심점

변인	군집1 (N=62, 18%)	군집2 (N=68, 19%)	군집3 (N=72, 21%)	군집4 (N=58, 17%)	군집5 (N=89, 25%)	F	p
스-진로불확실성	-1.190	.281	1.076	.443	-.543	137.376	.000
스-고용압박	-1.065	.359	.271	.454	-.063	33.103	.000
스-정보부족	-1.150	.258	.799	.645	-.434	85.046	.000
스-외적갈등	-.887	-.426	.914	.940	-.364	97.332	.000
스-내적갈등	-1.062	-.063	.704	.986	-.393	89.208	.000
탄-자기신뢰	1.003	-.587	-1.100	.535	.265	110.533	.000
탄-성취열망	1.007	-.432	-1.165	.339	.368	109.040	.000
탄-진로자립	1.059	-.439	-1.056	.363	.231	86.058	.000
탄-변화대처	.873	-.456	-.647	.680	-.169	45.448	.000
탄-관계활용	.646	.364	-1.090	.310	-.054	48.765	.000



1. 진로스트레스-진로불확실성, 2. 진로스트레스-고용압박, 3. 진로스트레스-정보부족, 4. 진로스트레스-외적갈등, 5. 진로스트레스-내적갈등, 6. 진로탄력성-자기신뢰, 7. 진로탄력성-성취열망, 8. 진로탄력성-진로자립, 9. 진로탄력성-변화대처, 10. 진로탄력성-관계활용

[그림 1] 군집별 프로파일

3. 군집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다섯 군집이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떤 군집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진로준비행동은 군집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F=19.324$,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 총점은 군집1($M=3.56$)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군집4($M=3.13$), 군집5($M=3.07$) 그리고 군집2($M=2.81$), 군집3($M=2.66$) 순이었다.

<표 4> 군집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검증과 사후검증

종속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진로준비행동	군집1	3.56	.706	19.324***	1>4,5 >2,3
	군집2	2.81	.589		
	군집3	2.66	.613		
	군집4	3.13	.688		
	군집5	3.07	.598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목적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을 근거로 대학생들 군집화하고, 이들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대학생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 척도를 중심으로 군집분석 하였더니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군집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1은 다른 군집들에 비해 진로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가 가장 낮았지만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높아서 ‘진로탄력성 강세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군집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 선행연구(강현희, 2015, 신혜진,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인 집단 못지않게 스트레스와 준비행동 모두 저조한 집단에 속할 확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신혜진, 2016)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군집2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반면 진

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낮아 ‘진로스트레스 우위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군집의 진로준비행동의 점수의 순위는 네번째였다. 이 군집의 하위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진로스트레스 척도에서는 부모 및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인 외적갈등 하위변인의 점수가 가장 낮고, 진로탄력성 척도에서는 관계 활용 하위변인의 점수가 가장 높다. 따라서 이 군집의 학생들은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거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다른 능력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군집 학생들의 진로지도에는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집3은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고,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낮아 ‘진로스트레스 강세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군집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다섯 군집 중 가장 낮았다. 이런 결과는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표은경(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하며 폴리텍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진로탄력성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한 강현희(201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진로탄력성이 부족한 대학생일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매우 높고 진로준비행동에는 소극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신혜진(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진로탄력성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다(Collard, Epperheimer, & Saign, 1996). 진로탄력성은 무엇보다 진로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으므로(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을 증진시켜 진로스트레스를 줄이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변화에 대처하고 관계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면 자연히 성취 열망이 커지고 자기 신뢰감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진로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당국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현장을 체험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군집4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으면서 동시에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도 높아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둘 다 높은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군집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다섯 군집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은 부적 상관을 가지므로 진로탄력성이 높으면 진로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 군집의 진로스트레스 총점은 전체 군집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진로탄력성 총점도 두 번째로 높았고 진로준비행동의 총점도 두 번째로 높았다.

군집5는 진로스트레스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낮으면서, 진로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높아 진로스트레스 점수보다는 진로탄력성 점수가 더 높으므로 ‘진로탄력성 우위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군집

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다섯 집단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다양한 군집유형이 존재하며, 대학생들이 각 군집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강현희, 2015;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주연, 송병국, 2014)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이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군집분석을 하면 진로스트레스가 높고 진로탄력성이 낮은 ‘진로스트레스 강세 군집’과 진로스트레스가 낮고 진로탄력성이 높은 ‘진로탄력성 강세 군집’에 대다수의 대학생이 속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진로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진로탄력성이 가장 낮은 ‘진로스트레스 강세 집단’에 속한 학생은 21%였고, 진로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진로탄력성이 가장 높은 ‘진로탄력성 강세 집단’도 18%에 지나지 않았다. ‘진로탄력성 우위 집단’이 25%로 평균보다 많은 대학생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진로스트레스 우위 집단’이 19%, 심지어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둘 다 높은 집단’이 17%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각 군집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탄력성과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변인과 변인들의 영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고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절반 이상의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진로지도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예언하는데 더 효과적인 변인은 진로스트레스보다는 진로탄력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스트레스($r = -.307, p < .01$)보다 진로탄력성($r = .499, p < .01$)과 상관이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표 2>와 <표 4>의 각 변인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진로준비행동의 총점을 기준으로 한 군집의 순위는 진로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진로탄력성을 기준으로 한 순위와 일치하였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 정서 그 자체임에 비해,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역경을 인내하고 적응해 나가는 역량이므로(Noe et al., 1990) 진로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몰입하게 함으로써 진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지속, 활성화 시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기(유현실, 2013; London, 1993)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수를 늘리고 체계적인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모집단인 한국 전체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비를 반영한 표집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전공의 영향력을 검증하지 않았다. 전공영역별로 전공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느끼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어윤경, 2011)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에 대부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윤정, 조규판, 2015).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와 우울증세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변은경, 박성희, 2014). 이처럼 전공에 따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전공특성을 고려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 군집의 차이,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석화, 나동석 (2013).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4), 49-71.
- 강현희 (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3), 83-104.
- 고경필,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 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고태용 (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7.12.14).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8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김명옥,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미경 (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양현정 (2015).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준비유형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95-110.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85-107.
- 김인경, 박운창, 이훈구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6(2), 87-101.
- 김정화, 김정아, 김미경, 조나영 (2007). **경희대 여성졸업자의 취업실태 조사 및 취업결정요인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학생지원처 여학생과 미간행연구보고서.
- 김진희 (2015). 진로정체성 진로통찰력과 진로탄력성이 대학생의 취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 10(1), 47-56.

김희동, 남수미 (2016). 비인문계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4(2), 53-80.

민혜리 (2003).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3), 133-149.

박선희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희락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성숙의 예측.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은경, 박성희 (2014). 전문대학 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기술학회논문지**, 15(1), 323-330.

송윤정, 조규관 (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신혜진 (2016).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진로동기의 영향력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49-373.

안윤정, 서지윤 (2013). 대학생의 일희망과 진로동기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55-81.

어윤경 (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분석: 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염태영 (2017).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이승구, 이제경 (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 성숙도와 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39-59.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 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장형석 (2000).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천과 대처전략.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0, 101-115.
- 전주연, 송병국 (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3), 171-200.
- 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최유진, 손은정 (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1(4), 749-768.
- 표은경 (2009). 여대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 박재황 (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5), 73-101.
- Bimrose, J., & Hearne, L. (2012). Resilience and career adaptability: Qualitative studies of adul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 338-344.
- Collard, B., Epperheimer, J. W., & Saign, D. (1996). *Career resilience in a changing workplace. Information Series No. 366*.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olumbus, Ohio.
- Gibbons, C. (2012). Stress, positive psychology and the National Student Survey. *Psychology Teaching Review*, 18(2), 22-30.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BS NEWS (2019. 2. 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8158&ref=A>
- King, A. S. (1999). Crescendo model of career motivation and commitment: Identity, insight, and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Value Based Management*, 12(1), 22-49.
- Larson, M. L., & Majors, M. S. (1998). Application of the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instrument with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163-17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 London,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 55-69.
- Noe, R., Noe, A., & Bachhuber, J. A. (1990).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340-356.
- Roenkae, A. & Pulkkinen, L. (1995).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81-391.
- Yap, A., & Tong, E. M. (2009). The appraisal rebound effect: Cognitive appraisals and the rebou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9), 1208-1219.
- Zunker, V. G. (2006). *Career services and counseling i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career counseling: A Holistic approach* (7th ed).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논문 접수: 2019년 5월 10일

논문 심사: 2019년 6월 27일

게재 승인: 2019년 8월 6일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luster Types based on Career Stress and Career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Hyunsoon Kim(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luster type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career stress and career resilience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is cluster types. The data of 359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lassified into five cluster types. Cluster 1, named 'Career resilience strong group' can be described as the lowest score of all sub-variables of career stress, but as the highest score of all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Cluster 2, named 'Career stress competitive group' can be described as slightly higher score of all sub-variables of career stress, but as slightly lower score of all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Cluster 3, named 'Career stress strong group' can be described as higher score of most sub-variables of career of career stress, but as the lowest score of all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Cluster 4, named 'Career stress and career resilience both competitive group' can be described as higher score of most sub-variables of career of career stress, and as the higher score of most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Cluster 5, named 'Career resilience competitive group' can be described as lower score of most sub-variables of career of career stress, but as higher score of all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lusters were found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average of Cluster 1 named 'Career resilience strong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rest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f career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follow - up study were discussed.

★ **Key word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tress, career resilience, cluster analysis